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자녀에 대한 기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의 관계

The Relationships among Maternal Social Networks, Maternal Expectation for Their Own Children and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Children

박영애 · 원효중
한남대 아동복지학과

Park, Young Yae · Won, Hyo Jong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Guidance, Hannam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maternal social networks on maternal expectation for their own children to examine the path that social networks had an effect on the self-esteem and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children through maternal expectation for their own children.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524 fourth to sixth graders and their mothers residing in Daejeon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1) Among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proportion of friends and neighbors, proximity, direction and interference had a negative effect, and proportion of mothers of child's friends, frequency of contact, intimacy, emotional support, service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maternal expectation for their own children. (2) Among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proportion of mothers of child's friends had a direct effect and proportion of friends, neighbors, and mothers of child's friends, proximity, frequency of contact, intimacy, direction, emotional support, service support, and interference had an indirect effect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through maternal expectation for their own children. (3) Among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proportion of kin and mothers of child's friends, intimacy, service support, material support and interference had a direct effect, and proportion of neighbors and mothers of child's friends, proximity, frequency of contact, direction, service support had an indirect effect 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through maternal expectation for their own children.

Key words : maternal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maternal expectation of their own children, children's self-esteem,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Won, Hyo Jong

Tel : 016-462-1349

E-mail : hjwon823@hanmail.net

I. 머리말

인간발달에 관한 생태학적 관점이 대두된 이래로 부모의 사회관계망은 아동발달의 중요한 사회적 맥락으로서 관심을 받아왔다. 일찌기 Cochran과 Brassard(1979)는 아동발달과 사회관계망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모델을 통하여 부모의 사회관계망이 아동발달의 다양한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중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Belsky(1984)는 양육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부모의 사회관계망이 부모의 개인적 심리적 자원과 함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사회관계망이 양육행동을 결정하며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해 왔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부모의 사회관계망을 분석하고 그 영향력을 검토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발달연구에서 좀더 포괄적으로 환경적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확장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며, 효과적인 양육환경의 조성을 모색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사회관계망의 크기나 기능적 특성인 사회적지원만을 분석하여 그 효과를 검토할 뿐 다양한 사회관계망 특성을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한계점을 나타낸다. 사회관계망은 다양한 차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은 각기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발달에 대하여 상이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Cochran & Brassard, 1979, 1990) 아동양육의 사회적 맥락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사회관계망 특성을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발달에 대한 사회관계망의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간접적인 효과를 규명하고 사회관계망이 부모의 중재를 통하여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발달의 결과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

행 연구들은 대체로 부모의 양육관련 변인과 아동발달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사회관계망 특성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문혁준, 2000; 이은혜·이미리, 1996; Cochran & Henderson, 1990) 또는 아동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김숙영, 1996; 성영혜, 1992)를 분리하여 검토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발달에 대한 사회관계망의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를 밝히려는 몇몇 시도들(구순주·최보가, 1998; 유우영·이숙, 1998; 이은혜, 1997)이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 또한 사회적 지원만을 다루고 있어 다양한 사회관계망 특성의 효과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좀더 다양한 사회관계망 특성변인과 양육관련 변인, 그리고 아동발달 변인들간의 관계를 관련지어 동시에 검토함으로써 사회관계망이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아동발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부모의 중재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종래에는 아동발달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이 아동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검토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아동발달에 상이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모의 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단순히 양육적 행동 자체를 연구하기 보다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관심을 두게 되었으며, 아동발달 전반에 대해 가지는 목표나 가치관 등 다양한 인지적 내용을 포함하는 부모의 신념이 아동발달에서 양육행동 자체보다 더 중요한 변인으로 강조되고 있다(안지영·박성연, 2002; Miller, 1988).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관계망과 부모신념간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요청되나 아직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 신념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우선적으로 부모기대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는 지적능력과 학업성적에 대한 부모들의 과도한 기대가 문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 상황에서 부모의 기대가 형성되는 사회적 맥락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Cochran과 Brassard(1979)는

부모의 사회관계망 구성원들이 아동의 인지적 발달과 사회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이론적 제안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사회관계망 특성이 여러 영역의 아동발달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여 왔다. 아동의 사회적 적응(유우영·이숙, 1998), 또래인기도, 학업준비도, 사회적 능력(이은혜, 1997), 문제행동(성영혜, 1992) 등이 사회관계망과 관련되는 아동발달 결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 인간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박영애·최영희·박인전, 2000a)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에 대한 사회관계망의 영향을 밝혀보고자 하는 시도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역량과 자아가치에 대한 평가적 신념으로서 인간의 발달적 변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뿐 아니라 긍정적인 자기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정서지능은 정서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평가하며 표현하는 능력, 정서에 접근하고 정서를 발생시키고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며(Salovey & Mayer, 1990)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과 개인의 학업성취나 성공적인 업무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동발달의 두 측면이 사회관계망과 부모기대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효과적인 자녀양육 환경을 모색하고 자녀 양육 전략을 탐색하는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양육 환경으로서 사회관계망이란 어머니와 아버지의 개인적 관계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어머니의 사회관계망을 중심으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증가하고 그 영향력이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기는 하나 여전히 어머니는 주 양육자로서 자녀와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며 가족의 대인관계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구성원이 아동발달에 더 밀접하게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적으로 어머니의 사회관계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사회관계망과 자녀에 대한 기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관계모형을 구성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첫째, 어머니의 사회관계망이 자녀에 대한 기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둘째, 어머니의 사회관계망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자녀에 대한 기대를 통하여 아동발달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자녀에 대한 기대,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2)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자녀에 대한 기대, 아동의 정서지능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사회관계망 특성

아동발달 연구에서 사회관계망이란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맥락으로 인식되는 개인적 관계망을 의미한다(Cochran과 Brassard, 1979). 이는 중심되는 개인이 친족, 친구, 혹은 친지 등 타인들과 정서적, 행동적 상호의존을 통하여 결합하고 있는 일군의 사람들(Rands, 1988) 혹은 특정한 개인이 알고 지내며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집합(원효종, 1997; Milardo, 1988)이라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친족, 친구, 이웃 그리고 직장, 종교단체, 각종 모임과 사회단체에서 연결된 동료들과 교사, 의사, 상담자와 같은 전문가 등 다양한 종류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개인적 관계망은 다양한 차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각기 부모의 태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발달에 대하여 상이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양육의 사회적 맥락의 특징과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사회관계망 특성을 보다 상세화할 필요가 있다(Cochran & Brassard, 1979, 1990).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관계망의 차원을 크게 구조와 기

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의 구조는 다시 형태와 상호작용패턴으로 구분되고 있다(원효중·옥선화, 2002). 형태적 특성이란 사회관계망의 구성과 조직에 의해 나타나는 특징들을 말하며 크기, 구성, 동질성 등이 포함된다. 상호작용적 특성이란 사회관계망내 양자관계 자체의 성격을 말하며 상호작용의 패턴이나 관계의 정서적 상태를 묘사한다. 이에 는 지속성, 지리적 근접성, 접촉빈도, 친밀도, 방향성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사회관계망 기능은 대체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사회관계망은 사회적 지원의 원천이 될 뿐 아니라 긴장과 갈등의 원천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관계망의 기능은 크게 긍정적인 사회적 지원과 부정적인 방해의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원효중, 1997). 사회적 지원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지만 대체로 지원적인 행동을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정서적 지원, 서비스 지원, 물질적 지원, 정보적 지원, 사회활동적 지원등 5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사회관계망의 부정적 기능은 방해라고 하며 자긍심의 손상, 문제행동 강화, 새로운 기회의 제한, 그리고 반대와 간섭으로 인한 갈등등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사회관계망 방해는 사회관계망 구성원들이 개인에게 간섭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정도라고 정의된다(원효중·옥선화, 2002).

개인이 형성하는 사회관계망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적절하게 분석되지 못하고 있다. 몇몇 연구들이(성영혜, 1992; Cochran, Lerner, Riley, Gunnarsson, & Henderson, 1990) 부모의 사회적 환경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고자 다양한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들을 두루 분석하고 있으나 사회관계망과 양육 및 아동발달과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경험적인 연구들은(구순주·최보가, 1998; 문혁준, 2000; 유우영·이숙, 1998; 이은혜, 1997) 대체로 어머니들이 사회관계망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의 정도만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발달에 대한 사회관계망의 효과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차원의 사회관계망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에 대한 기대는 부모신념의 한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Park, 2003). 신념이란 사전적으로 어떤 것이 진실 혹은 사실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하며 단일한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사고, 판단, 평가, 믿음, 기대 등의 다양한 차원의 정신적 과정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Park, 2003). 따라서 부모신념이란 부모가 아동발달과 자녀양육에 대해 가지는 신념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포함한다. 부모신념은 1980년대 이후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인지적 요인으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개념이다(안지영·박성연, 2002). 최근의 연구들은 단순히 부모의 양육행동자체를 연구하기보다는 부모가 아동발달에 대해 자녀양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신념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두게 되었으며 부모신념은 아동발달에 대하여 양육행동 자체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강조되고 있다(Goodnow, 1988; Miller, 1988).

박영애(Park, 2003)는 부모신념의 개념과 구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입장에서 다양한 정신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부모신념에 접근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포괄적인 개념을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모의 기대는 자녀의 실재적인 발달적 변화와 특성에 대한 지각이기보다는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적 특성과 과정에 대한 신념 또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전적으로 기대는 '어느 때를 기약하여 성취를 바람'(한국어 사전편찬회, 1988)을 의미한다. 이들을 종합하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란 부모가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는 발달적 특성과 과정을 자녀가 성취하기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적인 연구에서 부모기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되고 있다. 현은강(1993)은 자녀에 대한 기대를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의 관련변인으로 다루고 있다. 부모기대를 부모가 자녀에 대해 인지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 중 어떠한 분야의 역량을 더 원하는가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희망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Okagaki와 Divecha(1993)의 부모신념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에 의하면 부모의 기대는 자녀양육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육목표에 대한 부모의 신념은 양육목표인 아동의 특정한 특성과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믿는가로 측정되는데 부모의 기대는 바로 부모들이 목표하는 바람직한 특성 및 기술을 자녀들이 달성하기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Okagaki 와 동료들은 자녀들이 성취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목표를 문제해결능력, 창조성, 실질적 기술, 외적 기준에의 순응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Okagaki & Divecha, 1993). 안지영과 박성연(2002)은 양육목표를 인성과 지적성취로 대별하고 인성영역에는 자녀의 성격, 사회성, 소질 등의 요소를 포함시키고 지적성취 영역에는 공부, 경쟁, 사회에서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은경·박은혜·김희진(1998)은 유아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기대를 연구하면서 기대영역을 유치원교육과정의 생활영역인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김정원(2002)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의 자기규제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를 관련된 9개의 행동에 대한 요구로서 측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자녀에 대한 기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될 수 있고 기대 영역 또한 바람직한 발달과정, 행동, 인성특성, 능력 등으로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기대의 범위를 아동의 능력으로 한정하고 잠정적으로 자녀에 대한 기대란 부모가 중요하게 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을 자신의 자녀가 성취하기를 바라는 정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아동의 생활능력을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는 선행연구(이병림, 1987; 노현미·박인전·박영애, 1999)에 기초하여 자녀의 능력에 대한 기대를 지적능력에 대한 기대, 친사회적 역량에 대한 기대, 책임성에 대한 기대, 사교성에 대한 기대, 신체운동능력에 대한 기대, 예술적 능력에 대한 기대 등 6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3.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역량 또는 유능함과 자아

가치에 대한 평가적 신념으로서(홍성훈·도현심, 2002) 인간의 발달적 변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 적응 및 건전한 인성발달, 나아가 긍정적인 자기 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자아존중감은 자기에게 중요한 주위 인물들에 반사된 자기모습의 지각, 자기행동 결과의 효능성 경험, 그리고 본인 및 주위 타인들에 의해 행해지는 사회적 비교 등의 주요 과정들을 통해서 형성되어 간다(박영애, 1995).

자아존중감은 단일차원적 개념이기보다는 위계적 또는 다차원적 구조를 지니는 개념으로서 몇가지 요인들로 구성된다. 자신의 신체 대한 지각과 평가, 그 신체를 사용한 활동에서의 유능함, 자신의 본질적 속성과 성향에 대한 발견과 자각, 사회가 요구하는 속성 및 정보와 기술의 성공적 습득과 활용, 자기에게 중요한 주위인물 및 집단의 그에 대한 평가와 수용(관심, 애정, 인정, 신뢰, 존중, 지원 등), 현재의 자기와 되고 싶은 자기의 근접한 정도 등이 보편적인 자존감 구성요인이라 할 수 있다(박영애, 1995). Hater(1982)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지는 자아존중감을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 운동능력, 신체용모, 행동 등 다섯 가지 하위영역에 대한 지각과 전반적인 자아가치에 대한 지각으로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자아존중감을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정서지능은 일반적인 지능과 구별되는 능력으로서 지나치게 지적 능력의 향상에만 초점을 두어 온 교육과정의 대안적 목표로서 등장한 개념이다. 이것은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고 평가하며 표현하는 능력, 정서에 접근하고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서적·지적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정현희, 2002; Salovey & Mayer, 1990). 이러한 정서지능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개인의 학업성취와 직장에서의 성공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박영애·최영희·박인전, 2000b).

Salovey와 Mayer(1990)는 정서지능의 구성요소를 정서의 인식과 표현, 정서의 조절, 정서의 활용 등 3영역과 자기정서의 언어적 인식과 표현, 자기

정서의 비언어적 인식과 표현, 타인정서의 비언어적 인식과 표현, 감정이입, 자기정서의 조절, 타인정서의 조절, 융통성 있는 계획 세우기, 창조적 태도, 주의집중의 전환, 동기화 등 10요소로 구분하였다. 한편 Goleman은 정서지능의 구성요소를 자기인식, 자기조절, 자기동기화, 감정이입, 대인관계기술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정현희, 2002). 박영애 등(2000a)은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정서지능 척도를 개발하면서 요인분석에 의해서 다양한 정서지능의 구성요소를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정서인식,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 감정이입 등 4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을 4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4.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 자녀에 대한 기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의 관련성

1)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과 자녀에 대한 기대
Cochran과 Brassard(1979)는 일찍이 가설적 모형을 통해 부모의 사회관계망이 정서적 물질적 도움의 교환, 자녀양육에 대한 통제, 역할모델 등을 통해 부모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사회관계망은 부모와의 정서적, 물질적 도움의 교환을 통하여 부모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관계망체계로부터 부모들에게 전해지는 정서적, 물질적 지원은 부모들의 회의와 좌절을 경감시키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이 자녀의 욕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사회관계망 구성원들은 특정한 부모자녀간 상호작용 패턴을 권장하거나 제지함으로써, 또는 부모에게 모델로서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반대로 그런 행동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부모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Cochran과 Brassard(1979)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관계망 특성과 부모역할 행동간의 관련성은 경험적인 연구들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문혁준, 2000; 유우영·이숙, 1998; Cello & McLoyd, 2002), 사회적 지원에 대해 만족할수록(Jennings, Stagg, & Cannors, 1991) 긍정적인 자녀양육 행동을

을 많이 하고 효율적인 자녀훈육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관계망크기가 클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바람직하며(Jennings, Stagg, & Cannors, 1991)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양육과제를 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혜, 1997).

이상의 이론적 설명이나 경험적인 선행연구의 결과와 함께 부모의 신념과 양육행동간의 밀접한 관련성(안지영·박성연, 2002; Miller, 1988)을 고려하면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이 자녀에 대한 기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인지 및 태도는 부모 혼자 스스로 생성·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과 자극을 주고받는 가운데 배우고 느끼고 모방하면서 습득하는 것이므로 사회관계망이 부모의 인지요소인 자녀에 대한 기대와 어떤 관련이 있을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Okagaki 와 Divecha(1993)은 부모신념의 영향요인에 관한 관련연구를 고찰한 결과 사회관계망이 부모신념의 습득과 수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부모들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자녀양육과 아동발달에 관한 새로운 생각들을 접하고 자신의 신념을 수정하거나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Cochran과 Henderson(1990)의 연구에 의하면 미혼모의 사회관계망에 친족구성비율이 높으면 미혼모들은 자녀에 대해 좀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부모신념에 포함되고 있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사회관계망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 사회관계망 속에서 각기 다른 자녀에 대한 기대가 발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사회관계망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의 관계

Cochran과 Brassard(1979)는 부모의 사회관계망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모델에서 사회관계망이 부모의 중재과정 없이 인지적 사회적 자극, 직접적인 지원, 관찰모델 제시, 능동적인 관여의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관계망은 아동에게 부모들과의 상호작용방식과는 다른 상호작용패턴을 경험하게 해주며, 다양한 내용의 활동들을 할 수 있게 해주며,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해줌으로써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부모의 사회관계망 구성원들은 직접적으로 아동을 돌보아 주고, 관찰 모델이 되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에게 능동적으로 관계망에 관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자신의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발달시킨다. 또한 Cochran과 Brassard(1979)는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부모의 사회관계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발달의 영역을 제시하였다. 먼저 부모의 사회관계망은 인지적 발달의 네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의 사회관계망 구성원들은 아동에게 다른 얼굴모양, 다른 상호작용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지각변별능력을 발달시키며 목표지향적인 과업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킴으로써 과업완수 능력을 발달시킨다. 또한 사회관계망 구성원은 인지적 기억 능력의 발달을 촉진하여 표상적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자극에 대한 인지적 수용성과 개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사회관계망은 애착, 독립적 행동,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지각, 자녀양육 태도와 행동, 자아개념 등 다섯 가지 사회적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사회관계망과 아동발달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경험적인 연구들은 부모의 사회관계망이 다양한 아동발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친구관계(Tietjen, 1985; Cochran, 1990에서 재인용), 아동의 사회적 적응(유우영·이숙, 1998), 또래인기도, 학업준비도, 사회적 능력(이은혜, 1997), 문제행동(성영혜, 1992) 등이 사회관계망과 관련되는 아동발달 결과로 검토되고 있다. 어머니의 관계망이 동질적일수록 이웃비율이 높을수록 딸(8,9세)의 친구 수가 많았으며(Tietjen, 1985; Cochran, 1990에서 재인용), 사회적 지원을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주도성, 유능성, 사교성 등의 사회적 역량이 높은 것으로(구순주·최보가, 1998) 보고되고 있다. 다양한 사회관계망 특성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련성을 검토한 성영혜(1992)는 접촉빈도, 친밀성, 동질성, 만족도, 지원 기능의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적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아동의 문제행동은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특성보다는 기능적 특성이 더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우영과 이숙(1988)은 어머니가 받는 사회적 지원이 유아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지지는 않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부모의 사회관계망 특성이 직접, 간접적으로 아동발달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이 정서·사회적 발달의 중요한 요소인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3) 자녀에 대한 기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의 관계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자녀에 대한 기대와 아동발달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서는 자녀에 대한 기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발달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와 부모의 신념과 양육행동의 관련성 제시한 연구결과를 살펴보았다.

박영애(1995)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모의 수용, 관심, 참여, 친밀성, 애정, 또는 온정성, 의사존중, 지원 그리고 일관된 기대와 원칙 있는 훈육 등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이나 높은 자아존중감과 결부되어 있으며 부모의 구속적, 거부적 행동, 무관심, 비난, 모욕, 무시, 억압, 체벌, 가혹하고 비밀관된 훈육, 통제와 위협 등은 낮은 또는 허약한 자존감과 결부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경험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모의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성이 있으며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과 부적상관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홍성흔과 도현심(2002)은 관련연구의 고찰을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수용하며 존중해 주는 태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정서지능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검토한 연구(박영애·최영희·박인진, 2000b)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일수록 정서지능이 높았다. 어머니의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은 모든 하위 영역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신념과 양육행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Miller(1988)는 부모 신념과 아동발달에 관한 관련연구를 고찰한 결과 부모들이 자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들이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Goodnow(1988)는 부모의 신념에 따라 자녀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면 부모의 양육행동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그 결과 아동의 발달에 다른 영향을 주게 된다고 제시하였다. 안지영과 박성연(2002)에 의하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지적 성취를 강조하는 신념을 가질수록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과 관련되는 양육행동이나 자율을 격려하는 양육행동을 더 적게 하며 방임적으로 허용하는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아동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의 발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5.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자녀에 대한 기대, 아동의 자존중감 및 정서지능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그림 1>과 같은 관계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은 자녀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에 대하여 각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기대의 중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과 어머니 524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전시 5개 구에서 각각 한 학교를 선정하고 다시 각 학교의 해당 학년에서 각각 한 학급씩 선정하였다. 선정된 반의 담임 선생님을 통하여 어머니용과 아동용 질문지 세트를 아동들에게 배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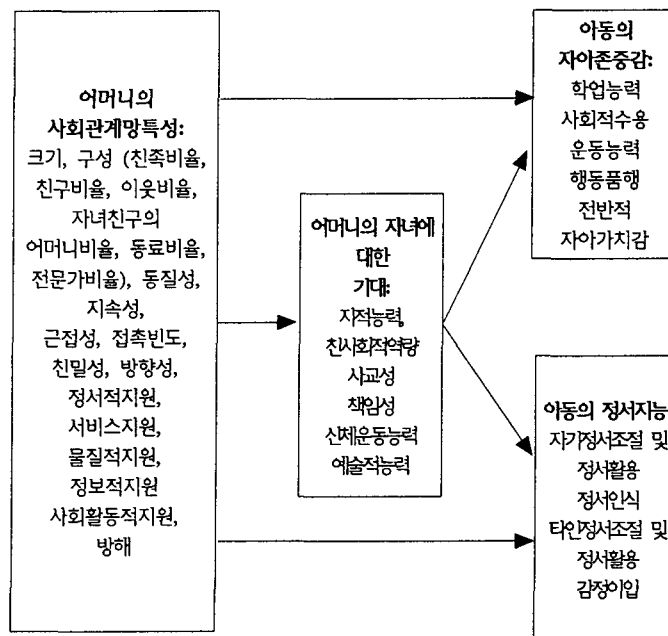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아동용 질문지는 교사의 지도하에 아동들이 작성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고, 어머니용 질문지는 아동들이 집으로 가져가서 어머니들에 작성하도록 한 후 다음 날 회수하였다.

연구대상 어머니와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9세로 30대가 약 60%, 40대 약 40%의 비율로 분포한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 59.8%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취업한 어머니가 60%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족 월 평균 소득은 200만원이상 300만원미원과 300만원이상이 각각 40%정도의 비율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에서는 판매·서비스직 종사자가 32% 정도로 가장 많고 사무직 종사자가 20% 정도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생산·노동직 종사자와 전문·관리직 종사자는 각각 23%와 26%의 비율로 나타났다. 대상아동의 학년은 4, 5, 6학년으로 세 학년이 거의 같은 비율을 차지하며 남 여 아동의 비율도 50%정도로 거의 같게 나타났다.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가 각각 55%와 38%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셋째이상의 자녀는 단지 8%정도에 불과하다. 대체적으로 대상자들의 배경 특성이 고르게 분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어머니용 질문지와 아동용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용 질문지에는 사회관계망 척도와 자녀에 대한 기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아동용 질문지에는 자아존중감 척도와 정서지능 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1) 사회관계망 척도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구성원을 추출하고 사회관계망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원효중(1997)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제작한 교환관계망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어머니가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1) 사회관계망 구성원의 추출

사회적 교환 영역을 정서, 서비스, 물질, 정보, 사회활동 5가지로 구분하고 여기에 부정적 교환영역을 포함시켜 6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교환영역의 내용을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것으로 광범위하게 포함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범위를 축소하여 자녀양육과 관련한 내용으로 제한하여 질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어머니의 사회관계망은 자녀양육관계망이라 할 수 있다. 각 하위영역별로 한 문항씩 총 6개의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해당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빈칸에 직접 기입하게 한 후 다시 중요한 순서대로 10명까지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2)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특성 척도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 ① 크기: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의 수로 측정한다.
- ② 구성: 사회관계망 구성원 각자와 응답자의 관계를 묻는 단일 문항으로 친족, 친구, 이웃, 자녀친구의 어머니, 동료, 전문가 등 6개의 응답범주가 주어졌다. 이 척도에 의해 관계범주별 구성비율이 측정되는데 구성비율은 전체 사회관계망 구성원의 수(크기)에 대한 친족, 친구, 이웃 등 관계범주별 구성원의 수의 백분율(%)로 산출된다. 따라서 구성특성은 친족비율, 친구비율, 이웃비율, 자녀친구의 어머니비율, 동료비율, 전문가비율 등 6개의 하위요소로 나타난다.
- ③ 동질성: 사회관계망 구성원 각자의 생활수준이 응답자와 비교하여 어떠한지 질문하며 응답범주는 '훨씬 낮다'에서 '훨씬 높다'에 이르기까지 5단계로 주어졌다. 유사한 경우에 3점, 약간 낮거나 높은 경우에 2점, 매우 낮거나 높은 경우에 1점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동질성이 크다.
- ④ 지속성: 사회관계망 구성원 각자와 알고 지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질문하며 '일년 미만'부터 '20년 이상'까지 5단계구분하고 각각 1점부터 5점까지 부여하였다.
- ⑤ 근접성: 각 사회관계망 구성원들이 응답자와 얼마나 떨어져 사는지 질문하였다. '한집에 산다'에서 '다른 시도에 산다'까지 4단계로 구분하고 4점부터 1점까지 부여하였다.
- ⑥ 접촉빈도: 사회관계망 구성원들과 얼마나 자

주 전화하거나 만나는지 질문하였다. '매일'부터 '일년에 한두 번'까지 각각 6점에서 1점까지 부여하였다.

- ⑦ 친밀도: 사회관계망 구성원과 얼마나 친한지 질문하였다. '매우 친하다'부터 '별로 친하지 않다'까지 4단계로 구분하고 각각 4점부터 1점까지 부여하였다.
- ⑧ 방향성: 사회관계망 구성원들과 어떻게 도움을 주고받는지 질문하는 단일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언제나 내가 준다'에서 '언제나 내가 받는다'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1점에서 5점까지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혜적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제공적이다. 3점에 가까울 때 호혜적이다.

(3) 사회관계망의 기능적 특성 척도

사회관계망의 기능을 사회적 지원과 방해로 구분하고 다시 사회적 지원을 정서적 지원, 서비스지원, 물질적 지원, 정보적 지원, 사회활동적 지원 등 5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다. 전체 6개 하위 영역별로 한 문항씩, 총 6개의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관계망 구성원이 응답자에게 사회적 지원이나 방해를 어느 정도 제공하는지 질문하였으며 응답범주는 '언제나 준다'에서 '주지 않는다'까지 5단계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별 기능점수는 '언제나 준다'에 4점 '주지 않는다'에 0점을 부여한 후 문항별로 사회관계망 구성원들이 응답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응답한 점수를 모두 합하여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원이나 방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자녀에 대한 기대 척도

자녀에 대한 기대 척도는 어머니용 질문지에 포함된 척도로서 자녀의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자들이 선행연구(현은강, 1993; Okagaki & Divecha, 1993)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먼저 아동의 능력 및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노현미·박인전·박영애, 1999; 이병립, 1987)를 참고하여 아동의 능력에 대한 기대를 묻는 54개의 문항을 구성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문항의 내용을 다소 수정 보완한 후 54개 문항을 모두 포함한 척도를 가지고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요인분석한 결과 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에 속한 문항들의 적재값이 .40이상이면서 다른 2개 이상의 요인에 속하지 않는 문항만을 선택하여 총 42개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척도를 구성하는 제 1요인은 지적능력에 대한 기대로서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 2요인은 친사회적 역량에 대한 기대로서 9문항으로 구성된다. 제 3요인은 책임성에 대한 기대로서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 4요인은 사교성에 대한 기대로서 6문항으로 구성된다. 제 5요인은 신체·운동 능력에 대한 기대로서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 6요인은 예술적 능력에 대한 기대로서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척도로서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에 1점, '매우 많이 기대한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기대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척도전체의 경우 .96이며 하위영역별로 지적능력 기대는 .89, 친사회적 역량 기대는 .90, 책임성 기대는 .84, 사교성 기대는 .81, 신체·운동 능력 기대는 .81, 예술적 능력 기대는 .77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는 Harter(1985)의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SPPC)을 기초로 박영애(1995)가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업능력, 운동능력, 사회적 수용도, 신체적 용모,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감 등 6가지 하위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하위척도별로 6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척도는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아동용 질문지에 포함시켜 아동이 자신의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는 하위영역별로 학업능력이 .81, 사회적 수용도가 .64, 운동능력이 .74, 신체용모가 .77, 행동품행은 .61,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72이며 전체 신뢰도는 .87로 나타났다.

4) 정서지능 척도

정서지능 척도는 아동 자신이 직접 응답하도록 작성된 척도로서 박영애 등(2000)이 정서지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정서 인식, 타인정서 조절 및 자기 정서표현, 감정이입 등 4개 하위척도 구성되며 총 6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3점 척도로서 '그렇다'에 3점 '가끔 그렇다' 2점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지능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척도전체의 경우 .89이며, 하위영역별로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요인이 .77, '정서 인식'요인이 .81, '타인정서 조절 및 자기 정서표현'이 .75, '감정이입'이 .71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예비조사와 본조사 두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2002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12일간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30명을 통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문항의 질문내용과 방식을 수정하고 질문지의 문항수를 조정하였다. 수정 보완된 질문지를 가지고 2002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1일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570부가 배부되어 558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부실 기재된 46부를 제외하고 524부를 최종적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한글 Window형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 자녀에 대한 기대,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이 자녀에 대한 기대

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사회관계망 특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stepwise 방법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초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은 변인을 제외시키고 경로모형을 단순화시켰다. 회귀분석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관계모형에 따라 1차적으로는 자녀에 대한 기대 요인들을 종속변인으로 사회관계망 특성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2차적으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사회관계망 특성변인과 자녀에 대한 기대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분산확대요인지수(VIF)가 낮아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다회귀분석결과는 <표 1>로 제시하였으며 경로분석 모형은 <그림 2>로 제시하였다.

1)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이 자녀에 대한 기대에 미치는 영향

<표 1>에 따라 자녀에 대한 기대의 하위영역별로 사회관계망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의 지적능력에 대한 기대에 대하여는 사회관계망 특성변인 중 이웃비율($\beta=-.20, p<.001$), 접촉빈도($\beta=.14, p<.01$), 자녀친구의 어머니비율($\beta=.12, 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 세 변인이 총 분산의 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내의 이웃비율은 자녀의 지적 능력에 대한 기대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세 변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내에 이웃비율이 낮을수록,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자녀친구의 어머니비율이 높을수록 자녀의 지적 능력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친사회적 역량에 대한 기대에 대하여는 사회관계망 특성변인 중 이웃비율($\beta=-.20, p<.001$), 정서적지원($\beta=.19, p<.001$), 친구비율($\beta=-.16, p<.01$) 방해($\beta=-.13, p<.05$), 접촉빈도($\beta=.12, p<.05$), 친밀도($\beta=.12, p<.05$) 등 6개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총분산의 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회관계망내에 이웃비율이 낮을수록, 정서적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친구비율이 낮을수록, 사

표 1.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²	Adjus-ted R ²
자녀에 대한 기대	지적 능력 기대	이웃비율	-.004	-.20***	.08***	.07***
		접촉빈도	.076	.14**		
		자녀친구모비율	.002	.12*		
	친사회적 역량 기대	이웃비율	-.004	-.20***	.12***	.11**
		정서적지원	.013	.19***		
		친구비율	-.004	-.16**		
방해		-.019	-.13*			
	접촉빈도	.071	.12*			
	친밀도	.123	.12*			
책임성 기대	이웃비율	-.003	-.15**	.04**	.03**	
	접촉빈도	.081	.13*			
사교성 기대	친구비율	-.003	-.11*	.02*	.02*	
	정서지원	.009	.13*			
신체운동 능력기대	이웃비율	-.004	-.15**	.05***	.04**	
	자녀친구모비율	.003	.11*			
	접촉빈도	.076	.11*			
예술적 능력기대	접촉빈도	.113	.16**	.08***	.07***	
	근접성	-.192	-.14*			
	이웃비율	-.003	-.12*			
	방향성	-.160	-.12*			
	서비스지원	.012	.12*			
	자녀친구모비율	.003	.11*			
자아 존중감	학업 자존감	자녀친구모비율	.004	.19**	.08***	.08***
		친사회적역량기대	.189	.19**		
	사회적 수용 자존감	자녀친구모비율	.003	.15*	.02*	.02*
	운동 자존감	신체운동능력기대	.338	.35***	.13***	.12***
		책임성기대	-.357	-.33***		
친사회적역량기대		.247	.22**			
예술적능력기대		-.178	-.19*			
행동 품행 자존감	자녀친구모비율	.004	.22***	.12***	.10***	
	책임성기대	.220	.27**			
	예술적능력기대	.162	.23**			
	지적능력기대	-.184	-.21*			
	신체운동능력기대	-.114	-.16*			
전반적 자아 가지감	자녀친구모비율	.003	.12*	.02*	.01*	

* p<.05. ** p<.01 *** p<.001

※ VIF(분산확대요인지수): 1.01~3.10

회관계망으로부터 방해를 적게 받을수록,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친밀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친사회적 역량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책임성에 대한 기대에 대하여는 이웃비율($\beta=-.15$, $p<.01$), 접촉빈도($\beta=.13$, $p<.05$), 친구비율($\beta=-.11$, $p<.05$) 등 3개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총분산의 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비율이 낮을수록 사회관계망과 접촉이 빈번할수록 친구비율이 높을수록 자녀의 책임성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사교성에 대한 기대에 대하여는 단지 정서적 지원($\beta=.13$, $p<.05$)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은 총분산의 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자녀의 사교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신체운동능력에 대한 기대에 대하여 이웃비율($\beta=-.15$, $p<.01$), 자녀친구의 어머니비율($\beta=.11$, $p<.05$), 접촉빈도($\beta=.11$, $p<.05$)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세 변인에 의해 총 분산의 4%가 설명되었다. 이웃비율이 낮을수록, 자녀친구의 어머니 비율이 높을수록,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신체운동능력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예술적 능력에 대한 기대에 대하여 접촉빈도($\beta=.16$, $p<.01$), 근접성($\beta=-.14$, $p<.05$), 이웃비율($\beta=-.12$, $p<.05$), 방향성($\beta=-.12$, $p<.05$), 서비스지원($\beta=.12$, $p<.05$), 자녀친구의 어머니비율($\beta=.11$, $p<.05$)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6개 변인에 의해 총 분산의 7%가 설명되었다. 다른 기대요인들과는 달리 예술적 능력에 대한 기대에는 접촉빈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접촉빈도가 사회관계망 구성원들과 자주 만날수록, 멀리 떨어져 살수록, 이웃비율이 높을수록, 사회관계망 구성원들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을수록,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서비스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자녀친구의 어머니 비율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웃비율과 접촉빈도가 사교성을 제외한 5개의 기대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계망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친구의 어머니 비율은 3개의 기대 하위요인에

대하여, 친구비율과 정서적 지원은 2개의 기대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접성, 친밀도, 방향성, 서비스지원, 방해 등의 사회관계망 특성들은 각각 한가지 기대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과 자녀에 대한 기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표 1>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별로 사회관계망 특성 변인들과 자녀에 대한 기대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자존감에 대하여 자녀친구어머니의 비율($\beta=.19$, $p<.001$)과 친사회적 역량에 대한 기대($\beta=.19$, $p<.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총분산의 8%를 설명하였다. 어머니의 사회관계망내에 자녀 친구의 어머니 비율이 높을수록 자녀의 친사회적 역량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수용자존감에 대하여는 자녀친구어머니의 비율이($\beta=.15$, $p<.05$)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총분산의 2%를 설명하였다.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내에 자녀친구의 어머니 비율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수용에 관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기대는 아동의 사회적 수용 자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자존감에 대하여는 신체운동능력에 대한 기대($\beta=.35$, $p<.001$), 책임성에 대한 기대($\beta=-.33$, $p<.001$), 친사회적 역량에 대한 기대($\beta=.22$, $p<.01$), 예술적 능력에 대한 기대($\beta=-.19$, $p<.05$)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총분산의 12%가 설명되었다.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은 아동의 운동에 관련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운동능력에 대한 기대가 운동자존감에 대하여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책임성에 대한 기대와 예술적 능력에 대한 기대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녀의 신체운동능력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책임성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친사회적 역량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예술적 능력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아동의 운동에 관련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행동·품행자존감에 대하여는 자녀친구의 어머니

니 비율($\beta=.22, p<.001$), 책임성에 대한 기대($\beta=.27, p<.01$), 예술적 능력에 대한 기대($\beta=.23, p<.01$), 지적 능력에 대한 기대($\beta=-.21, p<.05$), 신체운동능력에 대한 기대($\beta=.16, p<.05$)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총분산의 10%를 설명하였다. 책임성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지적 능력에 대한 기대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 자아가치감에 대하여는 자녀친구의 어머니 비율만이($\beta=.22, p<.001$)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아동의 전반적 자아가치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내에 자녀친구의 어머니 비율이 높을수록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신체·용모 자존감은 어머니의 사회관계

망 특성변인에 의해서도 자녀에 대한 기대 변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그림 1>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별로 사회관계망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자존감에 대하여는 사회관계망 특성변인 중 자녀 친구의 어머니비율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친구비율, 이웃비율, 접촉빈도, 친밀성, 정서적지원이 친사회적 역량에 대한 기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자존감에 대하여는 사회관계망 특성 변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친사회적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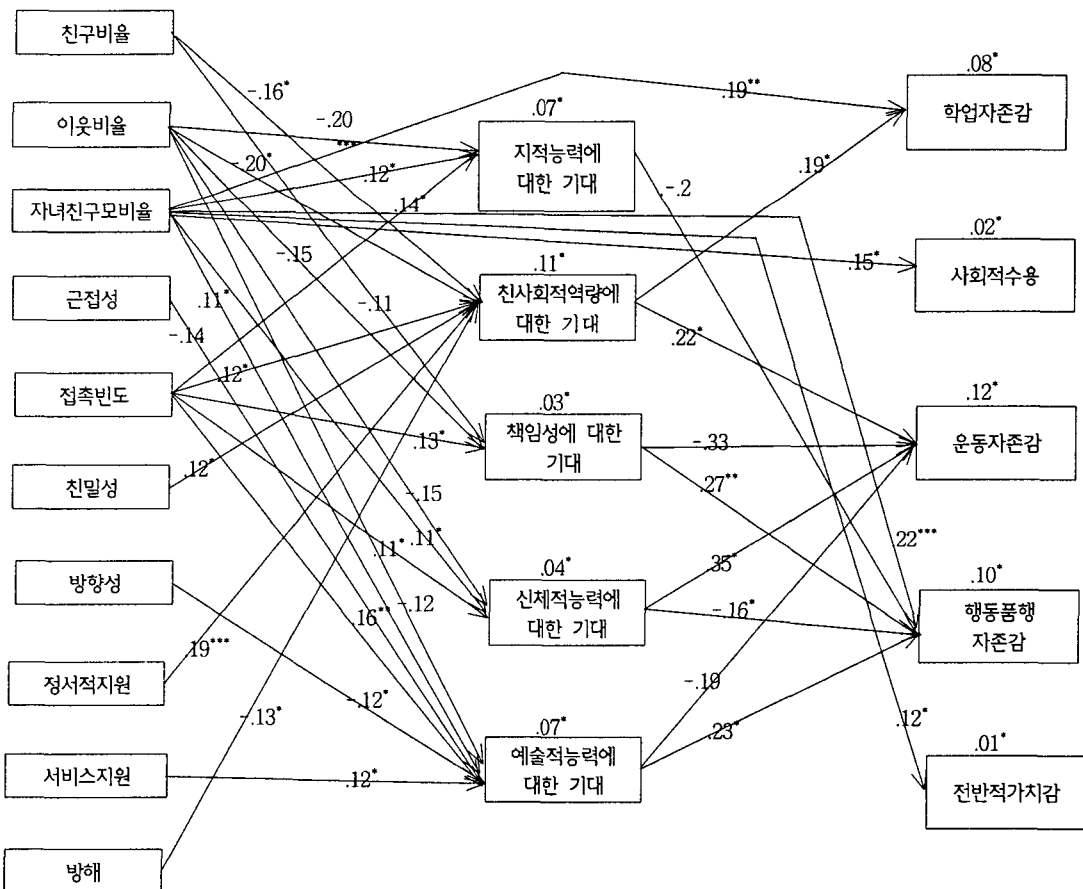


그림 2.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경로분석모형

랑에 대한 기대, 책임성에 대한 기대, 신체적 능력에 대한 기대, 예술적 능력에 대한 기대 등 4개 기대요인을 통하여 친구비율, 이웃비율, 자녀친구의 어머니비율, 근접성, 접촉빈도 친밀성, 방향성 등 7개의 구조적 특성 변인과 정서적 지원, 서비스지원, 방해 등 3개의 기능적 특성변인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품질 자존감에 대하여는 자녀친구의 어머니비율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지적능력에 대한 기대, 책임성에 대한 기대, 신체적 능력에 대한 기대, 예술적 능력에 대한 기대 등 4개 기대요인을 통하여 친구비율, 이웃비율, 자녀 친구의 어머니비율, 근접성, 접촉빈도, 방향성, 서비스지원 등 7개 사회관계망 특성변인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수용 자존감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에 대하여는 사회관계망 특성 변인 중 자녀친구의 어머니비율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간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2.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 자녀에 대한 기대, 아동의 정서지능간의 관계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과 자녀에 대한 기대가 아동의 정서지능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사회관계망 특성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대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관계모형에 따라 1차적으로는 자녀에 대한 기대 요인들을 종속변인으로 사회관계망 특성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2차적으로는 아동의 정서지능 하위요인들을 종속변인으로 사회관계망 특성변인과 자녀에 대한 기대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stepwise 방법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초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변인을 제외하여 경로모형을 단순화시켰다. 중다회귀분석결과는 <표 2>로 제시하였으며 경로분석 모형은 <그림 3>으로 제시하였다.

1)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과 자녀에 대한 기대가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표 2>에 제시한 회귀분석결과를 정서지능의 하

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에 대하여는 자녀친구의 어머니 비율($\beta=.18, p<.01$)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총 분산의 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기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내에 자녀 친구의 어머니 비율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정서인식에 대하여는 사회관계망 특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에 대한 기대요인 중 지적 능력에 대한 기대($\beta=.15, p<.05$)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에 의해서 총 분산의 2%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지적능력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인식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에 대하여 사회관계망 특성 변인 중 물질적 지원($\beta=.15, p<.01$), 자녀친구의 어머니 비율($\beta=.15, p<.05$), 친밀도($\beta=.14, p<.05$)가 자녀에 대한 기대요인 중 예술적 능력에 대한 기대($\beta=.13, p<.05$)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총 분산의 8%를 설명하였다. 어머니가 사회관계망으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내에 자녀 친구의 어머니비율이 높을수록, 사회관계망 구성원에게 친밀감을 크게 느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의 예술적 능력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아동의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감정이입에 대하여는 사회관계망 특성 변인 중 친족비율($\beta=-.13, p<.05$), 서비스 지원($\beta=.20, p<.01$), 방해($\beta=-.15, p<.01$),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녀에 대한 기대 변인 중 예술적 능력에 대한 기대($\beta=.13, p<.05$)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들 4개의 변인이 총분산의 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지원($\beta=.20, p<.01$)이 정서지능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친족비율($\beta=-.13, p<.05$)과 방해($\beta=-.15, p<.05$)는 정서지능에 대하여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내에 친족비율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관계망으로부터 서비스지원을 많이 받고, 방해를 적게 받을수록, 그리고 자녀의 예술적 능력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아동의 감정이입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표 2.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아동의 정서지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R ²	Adjusted R ²
자녀에 대한 기대	지적능력 기대	이웃비율	-.004	-.20***	.08***	.07***
		접촉빈도	.076	.14**		
		자녀친구모비율	.002	.12*		
	친사회적 역량기대	이웃비율	-.004	-.20***	.12***	.11**
		정서적지원	.013	.19***		
		친구비율	-.004	-.16*		
방해		-.019	-.13*			
접촉빈도		.071	.12*			
책임성 기대	이웃비율	-.003	-.15**	.04**	.03**	
	접촉빈도	.081	.13*			
사교성 기대	친구비율	-.003	-.11*	.02*	.02*	
	정서지원	.009	.13*			
신체운동 능력기대	이웃비율	-.004	-.15**	.05***	.04**	
	자녀친구모비율	.003	.11*			
	접촉빈도	.076	.11*			
예술적 능력기대	접촉빈도	.113	.16**	.08***	.07***	
	근접성	-.192	-.14*			
	이웃비율	-.003	-.12*			
	방향성	-.160	-.12*			
	서비스지원	.012	.12*			
	자녀친구모비율	.003	.11*			
정서 지능	자기정서 조절 및 정서활용	자녀친구모비율	.002	.18**	.03**	.03**
	정서인식	지적능력기대	.080	.15*	.02*	.02*
	타인정서 조절 및 정서표현	물질적지원	.007	.15**	.09***	.08***
		자녀친구모비율	.002	.15*		
		친밀도	.096	.14*		
감정이입	예술적능력기대	.063	.13*	.10***	.08***	
	친족비율	-.002	-.13**			
	서비스지원	.013	.20**			
	방해	.018	-.15*			
예술적능력기대	.113	.18**				

* p<.05. ** p<.01 *** p<.001

※ VIF(분산확대요인지수): 1.01 ~ 3.10

2)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그림 3>에 따라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별로 사회관계망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자기정서 조절 및 정서활용 능력에 대하여는 자녀친구 어머니의 비율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이며 자녀에 대한 기대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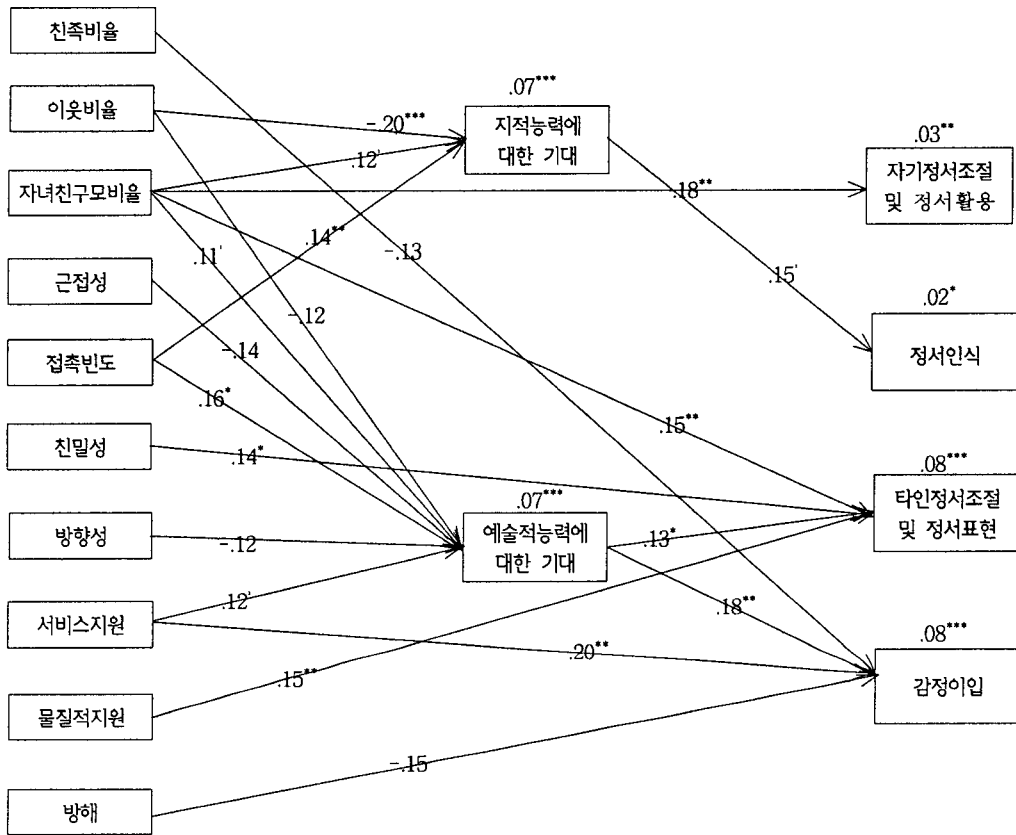


그림 3. 아동의 정서지능에 대한 경로분석 모형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서인식에 대하여는 사회관계망 특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적 능력에 대한 기대를 통하여 이웃비율, 자녀 친구의 어머니비율, 접촉빈도 등 3개의 구조적 특성변인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에 대하여 자녀친구의 어머니 비율, 친밀성, 물질적 지원 등 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술적 능력에 대한 기대를 통하여 이웃비율, 자녀친구의 어머니비율 근접성, 접촉빈도, 방향성, 서비스지원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이입에 대하여는 친족비율, 서비스지원, 방해 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예술적 능력에 대한 기대를 통하여 이웃비율, 자녀친구의 어머니비율, 근접성, 접촉빈도, 방향성, 서비스지원 등

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이 자녀에 대한 기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이 자녀에 대한 기대를 통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았다. 얻어진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는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 중 친구비율, 이웃비율, 근접성, 방향성, 방해 등이 자녀에 대한 기대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자녀친구어머니의 비율, 접촉빈도, 친밀성, 정서적지

원, 서비스지원 등이 자녀에 대한 기대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사회관계망 내에 친구비율과 이웃비율이 높을수록, 관계망 구성원들과 가까이 살수록,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을수록, 방해를 많이 받을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가 낮았으며 자녀친구어머니의 비율이 높을수록, 관계망 구성원들과 자주 접촉하고, 친밀감을 크게 느낄수록,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정서적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이것을 자녀에 대한 기대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각각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사회관계망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적능력에 대한 기대에는 이웃비율, 자녀친구어머니의 비율, 접촉빈도가 영향을 미쳤으며, 친사회적 역량에 대한 기대에는 친구비율, 이웃비율, 접촉빈도, 친밀성, 정서적지원, 방해 등이 영향을 미쳤다. 책임성에 대한 기대에는 친구비율, 이웃비율, 접촉빈도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사교성에 대한 기대에는 단지 정서적 지원만이 영향을 미쳤다. 신체운동능력에 대한 기대에는 이웃비율, 자녀친구어머니의 비율, 접촉빈도가 영향을 미쳤으며 예술적 능력에 대한 기대에는 이웃비율, 자녀친구어머니의 비율, 근접성, 접촉빈도, 방향성, 서비스지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전체적으로 친사회적 역량에 대한 기대와 예술적 능력에 대한 기대가 가장 많은 사회관계망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이웃비율, 접촉빈도가 자녀에 대한 기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는 자녀친구어머니의 비율, 정서적 지원 등이 자녀에 대한 기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웃비율이 자녀에 대한 기대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어머니들이 이웃들과 교류가 많은 경우 어머니들의 관심의 초점이 자녀의 능력과 발달 이외의 문제에 맞추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 때문일 수도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어머니의 경우 사회관계망 내에 이웃비율이 높게 나타나며(원효중·옥선화, 1993) 자녀에 대한 기대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Park & Won, 2003). 이것은 앞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통제한 연구를 통해 좀더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자녀친구어머니의 비율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녀친구의 어머니들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어머니들의 관심이 자녀의 발달에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 자녀의 발달에 관심이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친구어머니의 비율이 높은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친족비율이 자녀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친족구성원이 많을수록 자녀에 대해 좀더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Cochran과 Henderson(1990)의 결과와 상치된다.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자녀의 사교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은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이 긍정적이라는 선행연구(문혁준, 2000; 유우영·이숙, 1998)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을 때 자녀양육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게 되고 자녀에게 보다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사회관계망의 기능적 특성보다는 구조적 특성이 자녀에 대한 기대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회관계망이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성특성이 어머니의 기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회관계망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특성보다 사회적 지원 기능이 부모에게 더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의 주장(Belle, 1982; 문혁준, 2000에서 재인용)과는 다르다. 실제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은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는 정도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지만 자녀양육이나 발달에 대한 부모의 생각과 신념은 사회관계망이 얼마나 지지적인가 보다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사회관계망 특성 중 자녀친구어머니의 비율과 자녀에 대한 기대요인 중 지적능력, 친사회적역량, 책임성, 신체운동능력, 예술적능력 등에 대한 기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친구어머니의 비율은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학업자존감, 사회적수용자존감, 행동·품행자존감, 전반적 자아가치감에 대하여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운동자존감과 신체·용모자존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어머니의 사회

관계망 내에 자녀친구어머니의 비율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기대 요인들은 자아존중감 하위요인들에 대해 일관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때로는 정적으로 때로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지적능력에 대한 기대는 행동·품행자존감에만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자녀의 지적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가 높을수록 아동의 행동·품행자아존중감은 낮게 나타났다. 친사회적 역량에 대한 기대는 학업자존감, 행동·품행자존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자녀의 친사회적 역량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이나 행동 및 품행에 관련된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책임성에 대한 기대는 운동자존감에 대하여는 부적으로 행동·품행자존감에 대하여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자녀의 책임성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가 높을수록 아동의 운동에 관한 자아존중감은 낮았으나 행동 및 품행에 관련된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났다. 신체운동능력에 대한 기대는 운동자존감에 대하여 정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으나 행동·품행자존감에 대하여는 부적으로 약하게 영향을 미쳤다. 자녀의 신체운동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가 높을수록 아동의 운동자존감은 높았으나 행동 및 품행에 관련된 자아존중감은 낮았다. 예술적 능력에 대한 기대는 운동자존감에 대하여 부적으로 행동·품행자존감에 대하여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자녀의 예술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가 높을수록 아동의 운동자존감은 높게, 행동 및 품행에 관한 자아존중감은 낮게 나타났다. 사교성에 대한 기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사회관계망 특성보다는 자녀에 대한 기대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자녀에 대한 기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째, 아동의 정서지능은 사회관계망 특성 중 친족비율, 자녀친구어머니의 비율, 친밀성, 서비스 지원, 물질적 지원, 방해 등과 자녀에 대한 기대요인 중 지적능력에 대한 기대와 예술적 능력에 대한 기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각각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에 대하여는 사회관계망 특성 중 자녀친구의 어머니 비율만 영향을 미쳤을 뿐 자녀에 대한 기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내에 자녀 친구의 어머니 비율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정서조절 및 정서활용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정서인식에 대하여는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녀에 대한 기대요인 중 단지 지적능력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미쳤다. 자녀의 지적능력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인식 능력이 높았다.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에 대하여 사회관계망 특성 중 물질적 지원, 자녀친구의 어머니 비율, 친밀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녀에 대한 기대 요인 중 예술적 능력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사회관계망으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내에 자녀 친구의 어머니비율이 높을수록, 사회관계망 구성원에게 친밀감을 크게 느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의 예술적 능력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아동의 타인정서조절 및 정서표현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감정이입에 대하여는 사회관계망 특성 중 친족비율, 서비스 지원, 방해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녀에 대한 기대 요인 중 예술적 능력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미쳤다. 감정이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서비스지원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친족비율과 방해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가 관계망으로부터 서비스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방해를 적게 받을수록, 사회관계망 내에 친족비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녀의 예술적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가 높을수록 아동의 감정이입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아동의 정서지능은 자녀에 대한 기대보다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에 의해 더 크게 영향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서지능에 대하여는 사회관계망의 구조적 특성뿐만 아니라 기능적 특성이 중요하며 특히 서비스지원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서비스지원이 정서지능에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관계망 구성원들이 서비스 지원을 통해 아동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네째,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기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하여는 사회관계망 특성 중 자녀친구어머니의 비율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친구비율, 이웃비율, 자녀친구어머니의 비율, 근접성, 접촉빈도, 친밀성, 방향성 등 7개의 구조적 특성과 정서적 지원, 서비스지원, 방해 등 3개의 기능적 특성이 자녀에 대한 기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아동의 정서지능에 대하여는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 중 친족비율, 자녀친구어머니의 비율, 친밀성 등 3개의 구조적 특성과 서비스지원, 물질적 지원, 방해 등 3개의 기능적 특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웃비율, 자녀친구의 어머니비율, 근접성, 접촉빈도, 방향성 등 5개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인 서비스지원이 지적능력에 대한 기대와 예술적 능력에 대한 기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사회관계망이 직접적으로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의 중재를 통해 아동발달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Cochran과 Brassard(1979)의 주장을 지지하나 아동발달에 대한 사회관계망의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국내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사회관계망이 아동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구순주·최보가, 1998)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이은혜, 1997),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은 직접적으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보다 정서지능에 대하여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정서지능에 비해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차원의 사회관계망 특성이 아동발달의 각 영역에 대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 중 이웃비율과 접촉빈도가 자녀에 대한 기대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둘째, 자녀에 대한 기대 요인 중 친사회적 역량에 대한 기대와 예술적 능력에 대한 기대가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셋째,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 중 자녀친구 어머니 비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넷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사회관계망 보다 자녀에 대한 기대에 의해, 아동의 정서지능은 자녀에 대한 기대보다 사회관계망 특성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다섯째, 어머니의 사회관계망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보다 아동의 정서지능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보다는 자녀에 대한 기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실천적인 적용의 측면에서 고려할 점은 학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관계망에서 자녀친구의 어머니들이 부모신념의 발달과 아동발달의 사회적 맥락으로서 매우 영향력 있는 관계범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 중 자녀 친구어머니의 비율은 자녀에 대한 기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 모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들이 학부모모임이나 공동의 자녀양육 활동을 통하여 자녀친구 어머니의 비율이 높은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아동발달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서 긍정적인 부모신념과 아동의 발달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전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제한점 있다. 첫째, 사회관계망 측정도구는 다른 조사도구에 비하여 매우 복잡하고 응답하기에 다소 까다로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면접방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거나 본 연구에서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자기 기입식 질문지를 사용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면접방법에 의한 조사를

통하여 충실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어머니의 사회관계망이 자녀에 대한 기대나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회관계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녀에 대한 기대와 아동발달을 결정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회관계망 특성이 어머니의 기대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사회관계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이 검토되어야 하겠고, 이러한 변인들이 아동발달에 대한 사회관계망의 영향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통제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의 형태와 기능이 가지는 잠재력과 문제점을 적절히 파악하고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반가족 집단과 함께 가족 내 자원의 부족으로 사회관계망으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한 취약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간의 차이를 규명하고 비교하는 연구가 요구되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가족 단일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데 그쳐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특성의 형태와 그 영향력이 나타내는 의미를 적절하게 해석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자녀 양육 환경이 취약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양한 차원의 사회관계망 특성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었으며 아동발달에 대한 사회관계망의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동시에 규명함으로써 사회관계망이 부모의 중재를 통하여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의 일부분을 밝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주제어 :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자녀에 대한 기대,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참고문헌

- 구순주 · 최보가(1998). 어머니 관련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 23-34
- 김정원(2002). 영유아기 자녀의 자기규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양상. *한국아동학회지*, 23(4), 35-51.
- 김숙영(1996). 취업모의 사회적 지원체제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인지발달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현미 · 박인전 · 박영애(1999). 유아 및 가족배경 특성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 *가족복지학*, 4(2), 191-215.
- 문혁준(2000).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정도와 자녀훈육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4), 115-129.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애 · 최영희 · 박인전(2000a).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특성 및 상호관계. *아동학회지*, 21(3), 5-23.
- 박영애 · 최영희 · 박인전(2000b).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5(2), 160-182.
- 성영혜(1992).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제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지영 · 박성연(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53-68
- 원효종(1997). 도시핵가족 주부의 사회관계망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효종 · 옥선화(1993). 가족의 사회관계망 구조와 관련변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76-190.
- 원효종 · 옥선화(2002). 가족의 사회관계망 유형화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49-164. 유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0), 65-78.
- 이병림(1987).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지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혜(1997).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자녀양육에 대한 난이도 지각과 아동의 발달. *대한가정학*

- 회지, 35(3), 31-45.
- 이은혜 · 이미리(1996).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과 양육곤란도 지각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7(2), 61-78
- 장은경 · 박은혜 · 김희진(1998). 만 3세아 발달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기대. *대한가정학회지*, 39(4), 137-146.
- 정현희(2002). 아동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7), 25-39.
- 한국어사전편찬회(1988). *국어대사전*. 교육도서.
- 현은강(1993).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변인.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성훈 · 도현심(2002).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2), 145-157.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Cello, R. & McLoyd, V. C.(2002).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in poor, dangerdos neighborhoods. *Child Development*, 73, 1310-1321.
- Cochran, M(1990). Personal networks in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In M. Cochran, M. Larner, D. Riley, L. gunnarsson, & C. Henderson, Jr.(eds.), *Extending families: The social networks of parents and their children*. 3-3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chran, M(1993). Parenting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In Luster, T. & Okagaki, L.(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박성연 · 도현심 · 정승원 역(1996). *부모-자녀관계-생태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 Cochran, M. & Brassard J. A.(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Child Development*, 50, 601-616.
- Cochran, M. Henderson, C.(1990). Network influences upon perception of child: Solo parenting and social support. In M. Cochran, M. Larner, D. Riley, L. Gunnarsson, & C. Henderson Jr.(eds.), *Extending families: The social networks of parents and their children*. 119-13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chran, M., Larner, M., Riley, D., Ggunnarsson, L., & Henderson, C.(1990). *Extending Families: The Social Networks of Parents and their Childre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odnow, J. J.(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Ha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ter, S.(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Revision of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 Jennings, K. D., Stagg, V., & Cannors, R. E.(1991). Social networks and mothers' interactions with their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62, 966-978.
- Milardo, R. M.(1988). Family and social networks: An overview of theory and methodology. In R. M. Milardo(ed.), *Families and Social Networks*.13-47.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 Miller, S. A.(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 Okagaki L. & Divecha, D. J.(1993). Development of parental belief system. In Luster, T. & Okagaki, L.(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박성연 · 도현심 · 정승원 역(1996). *부모의 신념발달. 부모-자녀관계-생태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 Park, Y.(2003). Parental beliefs, parenting, and children's self-esteem in Korea. *Parental Belief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from Developmental Perspectives*, 191-223. Paper presented to the 2003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International Conference, Seoul.
- Park, Y. & Won, H.(2003). The effects of demographic variables on Korean parent's

beliefs about their children. *Parental Belief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from Developmental Perspectives*, 292-293. Poster Presentation presented to the 2003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International Conference, Seoul.

Rands, M. (1988). Changes in social networks following marital segregation and divorce.

In R. M. Milardo(ed.), *Families and Social Networks*. 127-146.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Salovey, P., & Mayer, J. D.(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2003. 12. 1 접수; 2003. 12. 22 채택)